

아세안공무원 연수 참가 후기 - 필리핀

## 소울이 가득한 서울

글 채리사 오펜렌시아\* (Charisse Opulencia) (필리핀 교통통신부 법무국 차관보, 변호사)

2015년 6월 2일부터 12일까지, 2015 ASEAN- 한국(ROK) 토지 수용과 보상을 위한 역량 구축 프로그램이 서울에서 열렸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그리고 베트남에서 참가자들이 모여들었다. 참가자들은 강남 노보텔 엠버서더 호텔에서 묵었다. 노보텔은 참가자들이 저녁 자유시간을 이용해 도시를 둘러보기에 좋은 장소에 위치해 있었다.

프로그램은 꽤 균형 있게 잘 구성되어 있었다. 참가자들은 토지 수용과 보상 분야의 뛰어난 전문가들이 강연하는 다양한 강의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주최측은 참가자들이 한숨 돌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에 다양한 문화 활동과 레크레이션 활동을 마련하였다.

\* Charissa Eloisa Julia Reyes Opulencia는 2015 ASEAN-ROK 토지 수용과 보상을 위한 역량 구축 프로그램 참가자 중 한 명이다. Opulencia는 필리핀 교통통신부(Philippin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DOTC)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법률 사무를 위한 차관보실(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Legal Affairs)의 직원/변호사 IV의 책임자 자리에 있다. 변호사 Opulencia는 법무차관실에서 담당하는 사건들을 감독하는 일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DOTC의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또한 Opulencia는 필리핀에서 명망 높은 로스쿨 교수이기도 하다.

나에게 이 프로그램은 전문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질적으로 풍성했다. 이 프로그램은 뛰어난 강연자들이 이끈 강의일 뿐만 아니라 다른 참가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수용이라는 것을 다른 각도로 볼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리고 다시 조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아직도 연락을 하며 지내는 친구들도 사귀었다. 만일 이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단연코 이번 경험을 내 최고의 여행 중 하나로 간직할 것이며, 토지 수용과 보상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이 프로그램을 추천할 것이다.



이 글을 통해 나는 역량 구축 프로그램의 참가자로서 겪은 내 경험을 간략하게나마 여러분에게 전해주고자 한다. 이 글에 내 경험을 전부 담을 수는 없겠지만, 11일 동안 일어난 아주 멋진 일들을 최대한 생생하게 떠올려 보도록 하겠다.

## 따뜻한 환영

필리핀 사람들은 극진한 환대를 하기로 잘 알려져 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동안 필리핀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은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 인천 공항에 내려 입국 심사를 받은 후부터 우리는 스태프들에게 따뜻한 대접을 받았다.

먼저 스태프들은 우리가 호텔에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또 다른 스태프들이 우리를 다시 한번 맞이해주었는데 이들은 우리가 호텔에 체크인하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침 식사도 제공해주었다. 우리가 각자의 호텔 방에 잘 들어갈 때

까지 신경을 써주었다.

개회식 만찬 역시 너무나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분위기였다. 나는 한국 국토교통부(MOLIT)와 한국감정평가협회(KAPA)의 고관들과 소통하게 된 것이 영광스럽게 느껴졌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빛내주고 우리와 저녁 식사 자리에 함께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잘 표현 해주었다.

## 한국의 토지 수용과 보상 시스템

변호사로서, 나는 세 가지를 이유로 한국의 토지 수용과 보상 시스템이 정교하고 독특하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한국의 시스템은 정당한 보상을 결정하기 위해서 부동산 감정평가사를 적극적으로 관여시킨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은 수용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들이 자신의 토지에 대해 흡족해할 만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두 번째,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사법권과는 달리, 한국

의 토지 수용 및 보상 시스템은 민간 부문이 직접 이 과정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시스템은 민간 부문의 수용권이 오·남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정도로 정교하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은 사실상 주로 항소심에서 법원 소송을 통한 행정적인 과정이다. 이 과정의 행정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1심에서는 긴 소송 과정을 피하게 되고, 결국 제안된 개발이 신속하게 실행된다.

## 필리핀의 수용제도

필리핀에서의 수용은 하나의 재판 과정이며, 소유주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에서 수용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수용 절차에서는 법적 변호인단으로서 법무차관실(Office of the Solicitor General)이 정부를 대변한다.

수용 과정, 특히 공항에 대한 사업인정에서 필리핀 정부가 맞닥뜨린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토지 분류이다. 개정된 ‘사회 정의의 촉진을 위한 종합 농업 개혁 프로그램 도입법’으로 잘 더 알려진 공공법(Republic Act) No. 6657은 관개된 농지와 관개할 수 있는 농지를 개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농지를 수용 절차의 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휴경지 또는 폐경지로

구분해야 할 지도 모른다. 이런 경우, 수용 절차 자체가 더 길어지거나 수용 과정이 이 토지가 휴경지 또는 폐경지라고 선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과 필리핀은 수용권을 행사하는 방법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지 모르지만, 양국 모두 두 가지 고귀한 목적을 염두하고 행한다. 그것은 바로 소유주에게 정당한 보상을 한다는 것과 국가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토지를 공공 사용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 가장 좋았던 연설자

### : 정기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프로그램 4일째 되는 날, 정기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가 종합적인 적법 절차에 대해 강의를 하였다. 모든 강연자들 가운데, 정기상 판사는 나의 호기심에 불을 지피고 내 관심을 가장 많이 사로잡은 사람이었다. 그는 치안 판사임에도 젊을 뿐만 아니라 강연 내내 달변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는 청중을 압도하는 방법으로 강연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강의는 관련된 정보로 풍성했다. 나는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법조인이 우리 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강의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정기상 판사는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의제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했는데, 이것은 한국 토지수용 및 보상(Korean Land Takings and Compensation, KLTC) 법에 따라 각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 행정처분을 계획된 공익사업에 대한 허가여기는 것이다.





이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 의제는 공익사업 허가에 대한 행정 결정을 대신하는 것으로 보아 한국의 토지 수용에서 나타나는 특징인 듯하다. 각 법률들이 특정 프로젝트를 공익사업으로 범주화하면서, 프로젝트 개발자들은 KLTC법에 따라 공익사업에 대한 허가를 얻는 복잡한 절차를 모면할 수 있다.

법적인 해석에 대한 관련 원칙들은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세하다는 점에서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 의제의 합법성을 지지할 것이다. 하지만 외부인의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국 정부는 앞으로 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 의제와 유사한 조항을 포함시키는 일과 관련된 위험 요소를 따져보아야 한다.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 의제가 프로젝트 실행을 앞당길 수 있는 반면, 이것은 또한 오·남용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 프로젝트 진행자들은 KLTC법에 따라 공익사업 허가에 대한 행정 결정이 대신 집행될 경우 예방할 수도 있을 과도한 수용을 하게 될 수도 있다.

한국의 토지 수용 또는 수용권과 관련된 100가지 법률 중에서 오직 19개의 법률만이 KLTC에 따른 공익사업 허가에 관한 필수요건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다소 불안감을 줄 수 있다. 나머지 81가지 법률은 공익사업인정에 대한 사업인정 의제를 승인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나는 공익사업인정은 일반 규칙으로 남겨두는 반면,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 의제는 단지 예외 상황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업인정 의제는 한국에서 불필요할 만큼 과도하게 토지가 수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필터링 과정을 말살시키기 때문에 사업인정 의제에 의존할 때는 아주 신중해야 한다.

## 가장 좋았던 강의 : 토지 수용과 보상 정보 관리 시스템

프로그램 7일째에 우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갔는데, 그 곳에서는 서명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 연구원이 건설 CALS(Construction Continuous Acquisition and Life-cycle Support)를 위한 마스터 플랜에 대해 강의했다. 이것은 정교하면서도 기술적으로 진보한 한국 토지 수용 및 보상의 또 다른 특징이다.



이 시스템의 설계와 구성은 각 건설 프로젝트 개발을 모니터 하는 데 있어서 정부와 민간 부문 모두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CALS 덕분에 모든 프로젝트에 투명성이 보장된다. 보고서와 건설 데이터 입수가 지연되는 일 역시 막을 수 있다.

정보에 대한 비용은 분명 막대하다. 당연히 재정적 자원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에도 큰 투자가 따른다. 하지만 이 시스템으로 인해 현재 거두어들이고 있는 이익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노력에 할당된 자원 덕분에 그 성과를 얻고 있는 듯하다.

이런 종류의 시스템은 특히 필리핀 민관 협력 프로젝트에서 정부와 프로젝트 계약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필리핀에서도 이 시스템에 투자하고,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한다. 이 시스템은 분명 전체 보고 과정의 속도를 높이고, 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걸리는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클릭 한 번으로 특정 프로젝트에 관한 관련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언급한 정보는 프로젝트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계약자에 대한 지불을 처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세종 행정중심 복합도시

호주는 내가 이주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본 유일한 나라이다. 특히, 호주의 수도인 캔버라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자주 그려보곤 한다. 하지만 우리의 첫 현장 방문지인 행정복합도시 세종시에 갔을 때 나의 생각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 도시는 아마 아시아에서 내가 이곳에 거주하는 모습을 상상해 본 처음이자 유일한 지역일 것이다. 세종시는 캔버라에서의 즐거운 기억들을 떠올리게 했다.

나는 세종시를 어떻게 개념화하여 건설하였는지에 대해 들었을 때 무척이나 흥미로웠다. 바로 내 눈 앞에 펼쳐진 역사를 보는 일은 환상적이었다. 나는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실행하는 일을 접해왔기 때문에, 이런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에는 얼마나 많은 자원과 재정, 인력 등을 투자했을지 생각해볼 수밖에 없었다.

세종시는 우리가 묵었던 호텔로부터 다소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고,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정부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나는 모



든 정부 청사가 한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아주 편리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이것은 모든 정부간 거래들을 한 장소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개발과 환경은 스펙트럼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세종 행정복합도시의 경우는 달랐다. 레이아웃과 배치 모두 시민들에게 유익한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있다. 도시 중심의 녹색 지구는 거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최첨단 개발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보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속 상기시켜줄 것이다. 세종시 규모의 52%에 해당하는, 한국에서 가장 큰 공원의 아름다움은 공원이 개발과 환경 보존이 함께 갈 수 있다는 증거로 작용한다.

한국은 이 도시에 아주 웅장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나는 이러한 계획들이 수년 내에 계속해서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안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 도시에 흠뻑 빠졌다. 아시아에서 내가 살 수 있는 또 다른 장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 기뻐다. 세종시는 관광지는 아닐 수 있지만 나는 다음에 한국에 오게 되면 가보고 싶은 목록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이다(꼭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해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희망한다).

## 광고 뉴타운 정보센터

우리가 현장 방문한 또 다른 새로운 개발 지역은 광고 뉴타운 정보센터였다. 나는 세종시가 더 좋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광고 역시 너무나 살기 좋은 곳이었다.



세종시처럼 광고 역시 새로운 개발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보존하고 있었다. 한 도시에 두 개의 호수를 연결해놓은 방식은 무척 흥미로웠다. 광고를 투어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공원을 걷는다는 것이었고, 피곤한 일정 속에서 한숨 돌릴 수 있었다. 꽃밭과 호수의 깨끗한 물뿐만 아니라 신선한 공기는 피곤하고 지친 영혼에 분명 편안함을 가져다 줄 것이다.

## ASEAN-ROK 교통 협력 포럼

6월 9일과 10일, 제6차ASEAN-ROK 교통 협력 포럼이 인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렸는데 한국의 여러 우수 기업들이 각자의 제품과 기술을 선보였다.

한국이 어떻게 교통 시스템 관련 분야에서 이토록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었는지, 그리고 ASEAN 이웃국가들과의 역량을 구축하는 데 얼마나 전념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약 50년 동안, 한국은 신뢰할 수 있고 편리한 대중 교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는데 이는 경쟁할 만한 가치가 있다.

ASEAN-ROK 교통 협력 포럼에 참석했을 때, 필리핀은 저개발국가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나는 나의 조국에 대해 안쓰러움을 느꼈다. 하지만 이 행사는 내가 공무원으로서 더 열심히 일하도록 자극을 주었다.

정말로, 필리핀은 특히 교통망과 관련하여 이루어야 할 것이 너무도 많다. 하지만 한국과 같은 국가들의 도움과 한국에서 제안하는 이용 가능한 기술을 활용한다면, 나는 필리핀에도 큰 희망이 있음을 확신한다.

이번 포럼에 참석하게 되면서 나는 내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에 대한 더 큰 열정이 생겼다. 이 포럼은 필리핀의 교통 문제에 대한 실행 가능한 해결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의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자극을 주었다.

필리핀 사람들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다. 뛰어난 국가 경영과 올바른 태도를 지닌다면, 한국이 이런 것들을 우리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참가자들이 토지 수용과

보상에 초점을 두고 그들의 역량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주최측은 참가자들이 즐거운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스케줄은 여행 중에 일과 여가 모두를 위한 시간이 충분하도록 신중하게 계획되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난타 공연을 본 것이었다. 공연은 너무 재미있었다. 나는 특별히 이런 종류의 극장이나 무대 공연을 즐기는 편은 아닌데 난타는 너무 훌륭한 이례적인 공연이었다.

무대와 배우들이 보여준 기술이 최고였다고 말하는 것은 절제된 표현이다. 모든 움직임에는 신중함이 있었다. 그들은 동시에 똑같이 움직였다. 각 대사는 완벽하게 전달되었다. 그리고 청중의 참여와 상호 소통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냈다.

나는 무대 공연을 그리 좋아하지 않지만 난타는 다시 볼 의향이 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다른 관광객들에게 난타를 보라고 권유할 것이다. 그만큼 돈과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즐긴다

프로그램에는 문화 행사와 관광을 위한 시간이 계획되어 있었다. 사실, 진지한 배움을 위한 시간이었지만 항상 휴식을 위한 시간도 함께 있기 마련이다.

참가자들은 경복궁 투어를 하게 되었다. 나는 한국 드라마에 나온 근위병밖에 본 적이 없다. 나는 내가 실제로 이들을 보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번 방

문은 실제로 경복궁에서 촬영한 한국 드라마인 대장금을 시청했던 나의 십대 시절을 떠올리게 하였다.

나는 이번 아세안 공무원 교육에 앞서 지난 3월에 4일간의 공휴일 동안 친구들과 서울에 왔었다. 우리는 인사동에 머물렀지만 롯데월드, 명동, 남산 타워 그리고 드라마 커피 프린스를 촬영한 유명한 카페에 가느라 경복궁에는 와보지 못했었다.

이번 여행에서야 인사동이 한국에서 전통적인 것을 쇼핑하기에 유명한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난 3월에 묵었던 호텔이 인사동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둘러보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다행히도 이번 프로그램 일정에 인사동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곳을 탐방하고 첫 여행 때 놓쳤던 것들을 할 수 있었다. 합리적인 가격에 훌륭한 품질의 스카프를 살 수 있는 좋은 매장도 있었다.

홍대에서 쇼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재미있었지만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홍대를 많이 구경하지는 못했다. 물건들도 비싸지 않았다. 홍대는 내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옷을 산 장소였기 때문에 이곳에 대한 즐거운 기억을 잊지 못할 것이다.

## 음식, 음식 그리고 또 음식

노보텔의 부페식 아침식사부터 저녁까지, 한국감정평가협회는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었다.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모든 음식점이 신중하게 선택되었다.

우리는 한국 전통음식, 지중해 음식, 이탈리아 음식 그리고 서양 음식 등 모든 종류의 맛있는 식사를 대접받았다. 각 음식마다 포만감 있고, 다양하고 맛있었다. 특히 내 마음에 들었던 음식은 방바닥에 앉아서 먹었던 한국 전통식사였다. 반찬이 너무 많아서 관광객들은 아마 어떤 것을 먼저 먹어야 할지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내가 특별히 맛있게 먹었던 또 다른 음식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열린 마지막 저녁 식사였다. 식사는 완벽했고 정성 들여 준비되었다. 여기서는 내가 한국에서 먹어본 최고의 스테이크가 제공되었다.

한국감정평가협회는 정말 친절하게도 우리가 자유 시간을 보낸 일요일에도 식사 쿠폰을 제공해주었다. 한국감정평가협회는 그날 아무 활동도 하지 않을지라도 음식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었다.

하지만 나는 정말로 먹어보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바로 한국 바비큐였다. 한국 바비큐는 필리핀에서 아주 유명한 음식이다. 여기서 바비큐를 먹을 수 있다면 필리핀에서 먹던 맛이 진짜인지 아니면 한국에서 먹는 것과 정말 동일한 맛인지 비교할 수 있어서 좋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바비큐는 우리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 일요일의 자유 시간

6월 7일은 자유 시간이었기 때문에 각자 시간을 보냈다. 어떤 그룹은 에버랜드를 갔고 다른 그룹은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우리는 본래 남이섬을 가려고 계획했지만, 각자 알아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나는 휴식도 취하고 훌륭한 호텔방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 정오에 일어났다. 일어나서 외출 준비를 한 후, 성당에 가서 영어로 미사를 볼 계획이었다. 하지만 명동 성당의 영어 미사는 오전 9시에 진행되어 놓치고 말았다.



그 후 나는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서강대학교에서 하는 채플에 갔다. 미사는 7시 30분에 시작하는데 너무 일찍 도착했기 때문에 카페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일을 조금 하기로 했다.

서강대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그 곳에 완전히 매료당했다. 너무나 평화로웠다. 캠퍼스는 정말로 공부하기에 좋은 장소였다. 분위기는 아주 고요하고 편안했다. 숨이 멎을 정도였다. 서강대학교 캠퍼스는 마닐라에 있는 두 곳의 대학교, 즉 아테네오 대학교와 산토 토마스 대학교를 떠올리게 하였다.

캠퍼스가 넓어서 나는 채플로 가는 길에 걸어서 주변을 돌아보기로 했다. 걸으면서 미사를 드리기 위해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상당히 좋았다. 내가 채플에 도착했을 때쯤에는 미사가 시작하기 몇 분밖에 남지 않았다. 채플의 규모는 작았지만 비교적 현대식이었고 관리가 잘 되어 있었다. 제단은 독특하면서도 매혹적이었다.

운 좋게도 미사를 올린 성직자가 서강대학교에 방문한 이탈리아인이었다. 미사는 매우 엄숙했다. 미사는 내 영혼을 맑게 해주었고 다음 한 주를 위한 준비할 수 있게 해주었다. 미사가 끝나갈 때쯤, 해설자는 그 공동체 출신의 몇 명에게 자기 소개를 할 것을 요청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이번 미사는 나에게 값진 시간이었다.

나는 원래 한국을 떠나기 전에 서강대학교에 다시 한번 갈 계획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만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한국에 다시 오면 반드시 일정에 포함시킬 것이다. 그 때가 언제가 될지는 오직 신만 아신다.

## 프로그램의 성공에 힘쓴 사람들

정말로, 이 프로그램은 배울 것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다른 모든 행사가 그러하듯, 이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애쓴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런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

크리스 김(김윤철 기획이사)은 우리의 활동에 언제나 모습을 드러내고 참가자들을 위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재정뿐만 아니라 시간까지도 너그럽게 내어준 그의 관대함은 정말 감동적이었다. 이번 여정에 그가 우리와 함께 해줘서 정말 좋았다. 사실 나는 이번 참가자들은 그의 가슴 한 켠에 특별하게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이번 행사 내내 지현배 과장, 장진우 대리의 존재감을 강하게 느꼈다. 그들은 이 프로그램을 주관했으며, 한국감정평가협회의 공식 사진사가 되었다. 아침이면 항상 미소로 우리를 환영했고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마다 늘 도움을 주었다. 지현배 과장, 장진우 대리와 맺은 우정은 언제나 내가 조국으로 가지고 온 값진 보물 중 하나일 것이다.

다른 스텝들 역시 우리를 굉장히 배려해주고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었다. Danny와 지원 스텝은 그들이 해야 할 일 이상으로 도와주었다. 그들은 매번 각각의 여행마다 다과를 준비해주었다. 우리가 아플 때면 약도 제공해주었다. 우리가 밤에 특별히 가고 싶은 곳이 있을 때는 길을 안내 해주기도 했다. 정말로, 이 프로그램의 성공의 상당 부분은 이 두 사람의 헌신과 인내심의 공이 컸다.

## 앞으로 계속 될 우정

나는 내 동료 참가자들과 함께 나눈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할 것이다. 나는 그들 중 몇 사람들과 보낸 시간 그리고 앞으로 지속될 관계를 쌓은 것에 늘 감사할 것이다. 나는 동료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스텝 중 몇 사람과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다. 사실 나는 내가 한국에 다시 방문 할 때 혹은 그들 각 나라에 방문해서 다시 만날 날을 상상한다. 이것은 내가 이번 프로그램에서 받은 가장 값진 축복이었다.

## 소울 가득한 서울

나는 이번 10일 간의 프로그램이 모두 일에 관한 것일 거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 생각은 틀렸다. 물론 강의에 참석해야 하고 프로그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일과 관련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이 프로그램은 내 자신을 어루만져 준 완벽한 프로그램이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나는 서울과 그 풍부한 문화를 살펴볼 수 있었다. 다른 국가들과의 열린 무역으로 인해 외국의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서울만의 분명한 문화가 존재했다. 인사동과 같은 일부 지역들은 아주 전통적인 모습 그대로 남아있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배경 속에서 살다 온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며, 그들은 내 마음 속에 특별하게 자리잡았다. 한국 국토교통부와 한국 감정평가협회 관계자들은 우리를 아주 따뜻하게 맞이 해주었다.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는 우리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오직 최고의 대우만 받도록 해주었다.

프로그램을 하면서 내 동료 참가자들과 나는 서로를 돌보아 주었다. 우리는 신나게 서울을 돌아다니고 구경하면서 많은 추억을 쌓았다. 우리는 각자의 가슴속에 남을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으며, 나는 앞으로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안다.

또한 이번 여행을 통해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학교와 채플 중 한 곳을 방문할 수 있었다. 내가 서울에 머무는 동안 일요일에 성당을 가는 나의 의무를 다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 미사는 정말로 엄숙했으며, 또 다른 바쁜 한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나를 재충전시켜 주었다.

이 프로그램의 참가자로서, 나의 서울 여행은 내 자신을 바꾸어 주었으며, 그런 이유로 이번 여행은 언제나 나의 소울 가득한 서울이 될 것이다. **KAPA**